

해피밀 시즌 5-1호를 발간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한 여정을 시작해 봅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님들! 해피밀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엿그제 같은데 벌써 시즌 5를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함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즌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홍해와 광야를 지나 젃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한계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계획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우리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시선과는 달리, 주님의 길은 언제나 완전하셨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고, 결국 모든 열방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불안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쉼 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025년 11월 어느날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수 1:1-9

네 하나님 여호와와

... 6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나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소크라테스의 명언 “너 자신을 알라”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입니다. 또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명언의 공통점은 ‘자신을 아는 것’이 삶의 유익이 되며, 또한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러한 말을 답습하며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몇 년 동안 자기계발의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메타인지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강조되어,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이 경건의 모습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사실 절망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두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는 이 두 지식이 함께 융합될 때 참된 지식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처참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때 깨달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참담함과 비참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은 결코 자기계발의 좋은 요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바라보면 유익이 있고 발전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자신만 바라보면 결국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시다.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매우 막중한 임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진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단 한 절만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절 말씀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것이 그에 대한 유일한 정보입니다. 그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 어떤 강점을 지녔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의 스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는 전혀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이 위대한 사명을 부여하는 본문에서 총만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그분은 실패한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십니다(5절). 그분은 모든 땅의 참된 주인이시며, 원하시는 자에게 그 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2-3절). 그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참된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1. 요즘 너무 과도하게 집중한 스스로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2. 그러한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추 1:10-18

이에 일어나

10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1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12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13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

해피인사이드

이동원 목사

10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에’입니다. ‘이에’라는 말은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뜻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리더로서 우뚝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가 이렇게 세움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1-9절까지의 여호수아는 아마도 두려워하며, 자신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의기소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려 네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리더로 우뚝 서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각자의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연약함, 실패감,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의 믿음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보니, 그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확정적인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는 그의 선포에 순종하겠다고 응답합니다(16절). 이 모든 장면을 보며 마음이 괜히 울컥해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짧은 날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후, 이스라엘이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왔을 때 그는 열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열 명의 정탐꾼은 두려움과 염려에 갇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믿음의 선포에 반응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아마 그 실패의 기억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짓눌러, 1-9절에서처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되심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니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선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분의 강하고 능하심을 힘입어, 다시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와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소화해내기 힘든 실패의 기억이 있나요?
2. 자신의 기억에 매몰되기 보다 다시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며 회복하길 기도합니다.





추 2:1-7

단조로운 도구들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 행동으로 인해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되었으며, 결국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이름을 남긴 몇 안 되는 여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며, 그녀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사실 그녀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녀는 그저 가나안 땅의 사자들에게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입니다. 그저 자신의 집 옥상에 있는 삼베 사이에 정탐꾼들을 덮어주었을 뿐입니다. 이 행동은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특별히 준비해야 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일어난 평범하고 단조로운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단조로운 행동을 두고 야고보 사도는 놀랍게도 라합을 칭찬합니다. [약 2: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다시 풀어보면, “그녀는 행동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의로움을 증명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을 어떻게 증명하겠는가?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라합은 일상 속의 단조로운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단조로운 일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단조로운 삶의 모습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사용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베’(3절)는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런 평범한 것들이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 수많은 평범한 도구들을 바라보며 기대해 봅시다. 그 도구들을 사용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구원의 감격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도구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할 때 쓰시나요?
2. 그 도구를 통해 나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보일 수 있을까요?





수 2:8-14

간담이 녹는 것보다

8 또 그들이 늪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간담이 녹는 것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오늘따라 담임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을 강하게 치거나,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기도 합니다. 또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얻기도 하지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주일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간담이 녹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지 '간담이 녹는 것'을 넘어서 그다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의 주민들도 간담이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6:1). 간담이 녹았지만, 하나님께 항복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졌고, 아무런 행위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소문을 들었고, 그녀의 간담도 녹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맞이하고, 숨겨주었으며, 이후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달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히 11: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여리고 주민들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라합의 항복은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단지 간담이 녹는 것으로, 은혜의 감동을 받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간담이 녹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것은 여리고의 주민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난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스라엘 정탐꾼이 언제 자신의 집에 올지 몰랐던 라합이 그 순간에 즉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해피인플루언서

1.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2. 그 말씀을 붙들고 주어진 상황마다 순종하고 계신가요?





추 2:15-21

기도의 창문

...18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20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21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해피인사이드

이동완 목사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문'입니다. 성경에서 '창문'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 창문을 통해 그를 도피시켰습니다(삼상 19:12).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세 번 창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라합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정탐꾼을 창문을 통해 구출해 냅니다. 이처럼 '창문'에 대한 반복적 강조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을 반영합니다. 그들은 '하늘의 창'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리는 공간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창문' 역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꼭 '창문'이 있습니다.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위험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의 창문을 열어 두십니다. 저는 그 창문이 곧 '기도'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환기시키는 창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했습니다. 믿음의 모든 선배들도 인생의 환란의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기도의 창'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의미심장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붉은 줄'입니다(18, 21절). 이스라엘 정탐꾼이 라합에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놓으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유월절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장자를 지켜 주신 일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일도 떠올렸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라합에게 유월절 때 자신들이 행했던 믿음의 표현을 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월절 사건이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피뿌림을 통해 완성될 구원의 예표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유월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창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언제든지 기도의 창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는 지금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2. 매 순간 기도의 창문 열기를 결단해보세요.





수 3:1-5

넘사벽 너머에 계신 분

1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싯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케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4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5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사벽(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때 사용하는 신조어)인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요단강의 평상시 너비는 30미터, 깊이는 1-3미터 정도로 흘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매우 빠르고 거칠어서 건너가 여간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너려는 이 시기는 삼대와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3월이 지난 이 시점에는 헤르몬 산 높은 곳에 있는 눈이 녹은 물 등이 감을 범람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30미터 너비의 강은 순식간에 200-1000미터 정도로 넓어져서 사실상 건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강 앞 싯딤에서 유숙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들은 사흘 후에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떠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사흘 동안 그들은 불어난 요단강을 보며 어떤 감정이 생겨났을까요? 아마 무력감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흘은 자신에게 놓여진 상황 가운데 무력감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신뢰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흘 동안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준비된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엔 십계명이 적힌 도판, 아론의 지팡이, 만나 항아리 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로 2000규빗(900미터) 떨어져 따라갔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을 주님과 함께 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도 안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즉, 이들의 행진은 단순히 전쟁을 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알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보여야 하는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매일 걷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최종적 승리를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넘사벽과 같은 사람 혹은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2. 그때의 감정은 어땠나요?





수 3:6-17

살아 계신 하나님

6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7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8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하고 10 또 말하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요단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요단 강을 건널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다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어난 물로 인하여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강을 건너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무 상자를 메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다리를 놓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 강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등장하는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원수들을 정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두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마른땅 위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웠지만,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멈춰 있던 물이 언제 그들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제사장들을 덮쳐 순식간에 쓸어버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메고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혹은 나의 경험으로 납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납득한 바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문화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곳에 서있기를 요청하십니다.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위태롭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선하심 앞에 나아가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던 적이 있나요?
2.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를 지키고 계신가요?





수 4:1-14

기념비를 세우신 하나님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분의 입김이 닿지 않은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상황, 문화, 교육 안에 속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갇혀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오랜 기간 받은 교육으로 인해, 모두가 동의하는 문화로 인해, 존경하고 따르는 누군가로 인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상황을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3-4월의 요단강은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넘어가는 방법 또한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할 수도, 감히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은 대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억할 방법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 두 지파는 각 지파 중 한 명을 대표로 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표는 돌을 한 개씩 가져와 두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돌을 두고 무슨 뜻이냐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음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기념비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기념비와 같은 것(사진, 영상, 사람들, 교회 등)들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기념비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념비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기념비 또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지 않으시면 기념비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념비로 회복을 얻고, 기념비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가르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보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념비는 무엇입니까? 기념비가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나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여러분만의 기념비를 소개해주세요.
2. 기념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나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서로 나눠봅시다.





수 4:15-18

상명하복?

15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17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 여호와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군대는 상명하복이라는 강력한 명령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자가 명령하면 하급자는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권위와 질서 혹은 효율이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때때로 심각한 피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 볼 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과 제사장들의 순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도록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떠한 것도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전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별 것 아닌 순종 같습니다. 물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은 매우 쉬운 명령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쉬운 명령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매우 쉬운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도, 사울 왕도, 요나도, 부자 청년도 합리적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순종의 내용이 쉽다, 어렵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순종의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답답한 것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쉬운 순종이라 할지라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별 것 아닌 순종이었지만 순종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별 것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멈춰 있었던 요단강의 물은 순식간에 들이 닳쳤습니다. 마른 땅이었던 그곳은 이전처럼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유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드시 일어날 주님의 일에 무임승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뛰어들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아무 값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교회 출석이나 사역 참여할 때 억지로 했던 경험이 있나요?





주 4:19-24

계속, 계속, 계속

19 첫째 달 십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 치매 20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21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22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

해피인사이드

포아론 목사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간은 첫째 달 십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을 취하는 날입니다. 4일 후에는 취한 양을 잡는 날입니다. 즉, 그들은 요단강에서 올라오자마자 어린양을 잡음으로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양의 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출애굽 사건이 이제는 2세대인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으로부터 올라와 기념비를 세운 곳은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곳에 나와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는 여호와를 위한 성소와 제단을 세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정기적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21절부터는 기념비에 대한 내용이 다시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와 강하신 것을 알게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살아 역사하시는 참 신이십니다. 둘째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끈질기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다른 대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워주셨고, 그들이 수시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기념비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시고, 그 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 보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늘 십자가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장소가 있나요?
2.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장년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4장 1-14절> 쓰기

1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택하고

3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4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열두 사람을 불러

5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6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시니라

8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둘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둘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10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넌으며

11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와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넌으며

12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 무장한 사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14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수 5:1-9

여호와와의 전쟁

1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2 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3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4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자 그 소식을 접한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울 의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분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세상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혹여나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할례를 할 상황이 아니라 적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할례를 전쟁 중에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적군들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거센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험이 닥칠 경우 도망칠 경로가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의 승패와 주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할례를 통하여 명확하게 나타내십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와의 전쟁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보면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라는 것을 증명의 표징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어떠한 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기실 전쟁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기실 이 전쟁을 그냥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붙잡으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전쟁을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내가 세상으로부터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루하루 영적 전쟁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추 5:10-12

새로운 은혜

10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들은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이 뜻은 그들이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지 않고 그 땅에서 얻은 소출을 먹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새벽마다 내렸던 만나는 그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젠 그쳤다고 생각되어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면, 이제는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밭을 가꾸며 수고함으로 곡식이 키워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곡식마저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셨으며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은혜로 앞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만나와 같은 기적적인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만나가 그치는 순간이 언젠가는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공급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는 만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주님으로부터 당연시 여기는 은혜가 있지는 않습니까?
2.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주 5:13-6:7

하나님의 편

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14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열 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 여호와와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와 군대 장관을 만나 여호수아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와 군대 장관은 자신은 아무의 편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의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와 군대 장관을 향한 여호수아의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와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뜻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를 앞두고 여호수아로부터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며 신뢰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을 벗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중부의 핵심 도시이자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이 가득하여 성의 문을 닫아버렸으며,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와 군대 장관을 통하여 이 성을 점령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도는 겁니다. 합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절대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주님께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대로 자신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 땅의 지혜로 자꾸만 판단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합리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붙들고 그분께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쫓아가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나는 하나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수 6:8-11

침묵하고 인내하는 믿음

8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언약케는 그 뒤를 따르며 9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10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 여호와와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을 돌며 한두 마디씩 나눈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말들이 좋은 말들일 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평과 원망 그리고 의심에서 근거가 된 말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침묵과 인내는 주님 앞에서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인지하고 침묵하며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구심을 품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묵하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쏟아져 나올 것 같은 쓴 물이 많을 때 우리는 말로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서로 상처 주기도 쉽습니다. 하나 됨이 파괴될 때도 많습니다. 원망하며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침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왔을 때 기필코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오늘도 원망과 불평보다는 침묵과 인내로 주님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고 순종하며 따르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혹여나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 놓지는 않으십니까?
2.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하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선하신 주님은 언제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분을 의심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수 6:12-14

주께서 높이시는 자

12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의 궤를 메고 13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와 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와 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14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옛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해피인사이드

전보아스 목사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 여리고를 상대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전략은 물상식하고 비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조롱과 비아냥을 자아낼만한 전략이었으며, 추락한 적의 사기를 다시금 살려둘 것만 같은 말도 안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옛새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이나 돌고 여호수아의 지시에 따라 크게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상식적인 말씀에 리더인 여호수아가 먼저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으며, 이를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사실 이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리더십과 카리스마는 강력하고 능력 있는 리더십이어야만 했습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며,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새로운 리더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인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도 불순종했었는데 모세의 몸종과도 같았던 여호수아에게 상식적으로 잘 순종하지 않는데 맞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반감과 의심을 충분히 살만한 이 명령에 그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지혜나 능력 혹은 리더십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전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27절 말씀에선 그의 이름이 온 땅에 높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내세웠을 때 그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로부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해피인플루언서

1.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분으로부터 높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2.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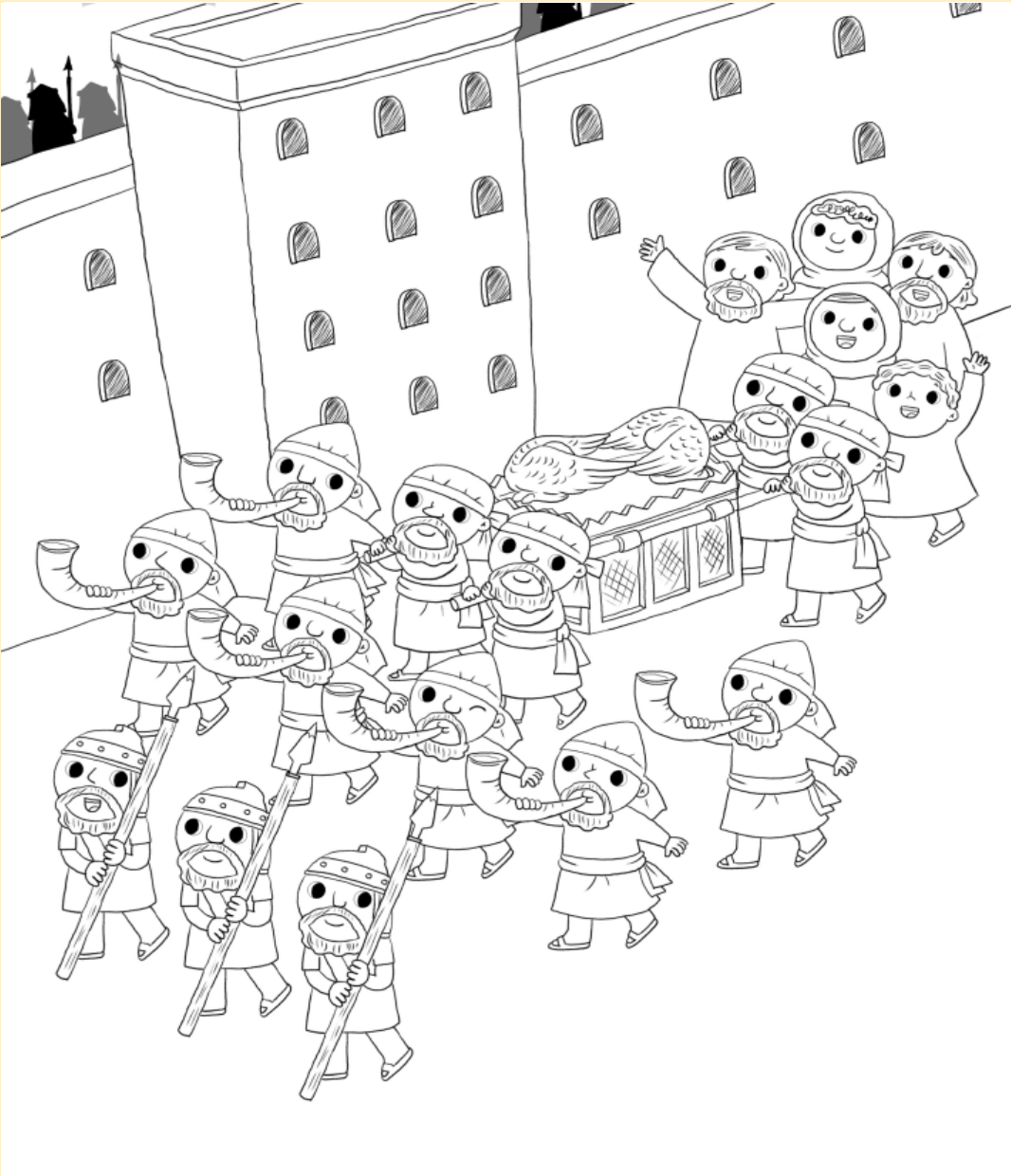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유아유치부 가정예배

우리 식구 다 같이 <여호수아 6장> 색칠하기

여호수아 6장 1-14절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과 함께 색칠공부를 해보아요.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무너졌어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